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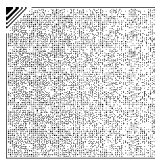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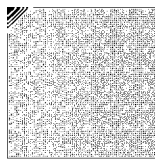


#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5년 12월 271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장애인당사자대회 개최

12 특집  
굿바이 2015 한해 돌아보기

14 인물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경진 · 양순자 부부

17 국제  
의족 찬 프로농구 선수 활약



## 특정 장애인단체 부당예산 지원 저지 집회 일단락

장애인들, 특혜 부당성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릴 것



경북도청 앞에 전국의 장애인들이 집결해 도청의 특정 장애인단체 부당예산 지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였다.

최근 경상북도의 특정 장애인단체 특혜성 예산배정으로 지역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에 당초 계획한 약 28억 원에서 22억 원을 삭감한 약 6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고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협회는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경상북도 내 등록단체로, 아직 회원조직과 사업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곳이다. 이 협회가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근거는 권익상담사업

으로, 이는 이미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단체들의 사업과 중복된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검증되지 않은 특정단체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 등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9일부터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혜 철폐를 요구해왔다.

비대위 측은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검증 안 된 특정 단체에 몰아배정하는 경북도청의 부당한 처사

를 사회에 낱알이 고발하겠다. 또 장애인의 갈등과 단체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북도청에 끝까지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의 의지를 밝히며 집회를 잠정적으로 일단락지었다.

비대위는 향후 경북도청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도청의 부당한 처사를 청와대, 감사원 진정 등을 통해 사회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청과 도의회가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네이버 달력, 지체장애인의 날 등록



지체장애인의 날을 표기한 네이버 달력. ©네이버

지난달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는 달력 정보에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공식 등록했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은 2001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제정한 기념일로, 올해 15회를 맞았다. 이 날은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1처럼 지체장애인이 단합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힘찬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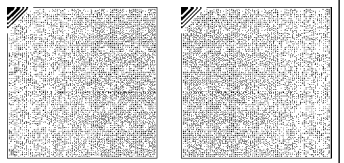
이 같은 지체장애인의 날의 포털 등록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직접적인 민원제기가 발단이 됐다.

권 시장은 11월 초 네이버 고객센터에 연락해 “인터넷에서 11월 11일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나 달력, 기타 자료에 ‘빠빠로 데이’, ‘농업인의 날’은 검색이 되는데, 왜 지체장애인의 날은 없느냐”며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달력 정보의 기념일 등록 기준은 법정기념일, 국경일, 선거, 절기 등 주로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체장애인의 날은 복지사회를 염원하는 좋은 의미여서 등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뒤 11월 11일에 ‘지체장애인의 날’을 추가했다.

현재 네이버 달력 서비스에는 ‘농업인의 날’과 ‘지체장애인의 날’ 정보가 나란히 올라있다.





# 유소년 선수와 장애인 국가대표의 만남

‘세빛섬과 함께하는 멘토·멘티의 만남의 날’ 스포츠 멘토링 성료



김광환 중앙회장과 세빛섬 강영철 상무 스포츠 멘토링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19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세빛섬과 함께하는 멘토·멘티의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스포츠 선수 멘토링사업을 마무리했다. 스포츠선수 멘토링사업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비장애인 청소년 스포츠선수들을 매칭해 스포츠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세빛섬이 후원했다.

4개월간 진행한 멘토링의 성과를 발표하는 ‘화합의 장’은 가빛섬 3층 리브고쉬홀에서 총 3부에 걸쳐 펼쳐졌다. 1부는 사업 경과보고와 동영상상영, 인사말, 감사패·단체복 전달식, 2부는 오찬, 3부는 각 팀별 발표 및 소감 나눔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멘토링을 수행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9명과 시온고등학교·불광중학교 학생 25명뿐만 아니라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세빛섬 강영철 상무, 각 학교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포츠 선수 멘토링 사업은 지난 8월 대한장애인육상연맹과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의 협력으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9명이 최종 멘토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장협에서는 8월 20일 멘토링 수행에 앞서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멘토와 예비 멘토 교육을 진행하며 멘토의 자세와 목적 등을 전달했다.

이어서 지장협은 7~9월 초까지 교육청과 시온고등학교·불

광중학교의 협조로 비장애 유소년 선수 멘티 25명을 모집했다.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기질검사 및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했고, 같은 유형끼리 그룹을 만들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매칭한 총 9개의 팀은 이후 자율적으로 시간을 협의하여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스포츠 선수 특성상 시험과 훈련, 국내·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시간 여유가 없었지만, 멘토 선수들의 열정과 각 학교 관계자들의 배려로 멘토링 시간을 확보해갔다. 멘토와 멘티들은 서로의 스포츠를 체험하며 알이간 후 상대방의 훈련장을 방문해 격려와 응원을 하는 등 교류를 늘려갔다.

멘티 A양은 “멘토와의 첫 만

남은 어색했다.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서로 종목은 다르지만 ‘스포츠’라는 공통점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운동하면서 힘들 때마다 문자를 보냈는데, 훈련으로 바쁘면서도 항상 친절하게 답장해주고 조언을 해줘서 위로가 됐다. 멘토링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에는 학생

들이 학교생활과 훈련을 하면서 힘든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목표도 없이 그저 운동만 했다. 그러나 멘토링을 통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 노력,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자신감과 감동을 얻었다.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까지, 스포츠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하겠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멘티들이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장차 우수한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한편으로는 장애로 인해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복지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인 ‘세빛섬과 함께하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멘토링하던 사업들과 다르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멘토가 되어 비장애인 유소년 선수를 멘토링하며 스포츠계 선배로서의 경험을 나눴다.

##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 모색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장애인복지법 발의

황주홍 국회의원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을 12월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인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 행위를 알게 된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 중 44개 시설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등 거주시설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의 보조금을 가로 채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학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 또는 방임 등 학대 행위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복지부, 장애인정책자문단 발족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위원 위촉을 겸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정책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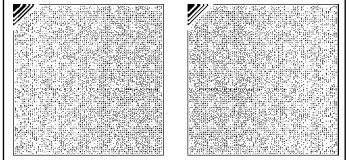
장애인정책자문단은 장애인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장애계 의견을 반영해 발족하게 됐다.

자문위원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장애인단체와 선정회의를 실시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학식과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교수·변호사 등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자문위원은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공감염형국 변호사 등 11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방안’ 등 장애인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정진엽 장관은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로부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 2015 장애인당사자대회 토론의 장

##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5명 수상

12월 3일 제23회 세계장애인 의 날을 맞아 장애인당사자 운동의 재도약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실현을 위한 ‘2015 장애인당사자대회’가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관련 정책 및 문제점을 논의해 복지정책과 제도개선 등 향후 활동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 시상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한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은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를 맞이했으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법인지원부 이승일 부장,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은 사무국장, 프라엠에셋 최재성 지점장이 수상했다. 이들 5명은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을 받았다.

### 장애인당사자운동의 과제

1부 시상식에 이어서 2부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당사자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전망과 과제’,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방안’의 2가지 세션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2015 장애인당사자대회 활동가상 수상자들과 주요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웅호 사무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운동과 UN장애인권리협약 참여 등 장애인당사자의 활동을 통한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소개한 후 당사자운동의 재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를 발표했다.

선결 과제는 첫째,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 및 절차에 반드시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경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장애인당사자가 결정과정이나 절차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이외 다른 부처의 경우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장애인당사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장애인당사자의 현장경험이 인정받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최근 장애계의 화두는 다양성”이라며 “이것을 장애인복지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못하면 단순화시키고 과거의 획일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제도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배 사무총장의 발제와 궤를 같이 했다.

###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방안

두 번째 세션인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방안’에서 이범재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인물보다는 제도로, 개인보다는 세력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제자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권능 연구실장은 “정치가 보통사람에 의해 가장 잘 실현될 가능성이 높듯이, 장애인의 문제를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주체 또한 장애인”이라며, “장애인이 직접 형성, 결정, 집행, 평가의 주체가 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지영 사무국장은 2016년 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이하 총

선연대) 활동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8개 장애인당사자단체가 모여 발족한 총선연대는 장애인당사자가 만드는 제20대 총선의 장애인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해 연대를 구성했다. 12월까지 장애인단체간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현안 및 정책을 위한 공통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연대는 정리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1~2월 최종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지영 사무국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비례대표제에서 몇 명의 장애인의원이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장애감수성이 담긴, 그래서 많은 지역후보가 수용해 이행할 수 있는 친장애적인 공약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선연대의 방향을 전달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준비하는 데 많은 장애인당사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장애인주거안정협회 김동희 회장은 “총선연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연대는 선거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매년 선거 때마다 각 장애인단체가 연대하며 모였다 선거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점검과 감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애인재활상담사 ·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 신설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

12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의 국가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전문인력으로 대학 등에서 재활학, 인간재활학, 재활복지학, 직업재활학

등을 전공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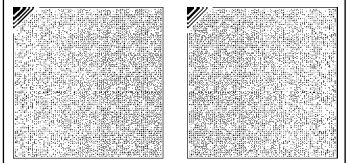
보조공학사는 장애인·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개발·개조·평가·선택·설치·유지 보수하는 전문가로, 대학 등에서 재활공학이

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모집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약 2년

후 시행되며, 기존 직업재활사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 특별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조공학사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빠르면 3년 후부터 시행된다.



# 2015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 장애인 인권향상 기여...원곡법률사무소 등 5곳 수상



2015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금지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2015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

식을 12월 3일 개최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정·관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의 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장애인인권현장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구체적 실천을 해 온 사람들의 노력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1999년부터 수여해 왔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원곡법률사무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인권실천부문), 비마이너(인권매체부문), 충청북도 청주시(기초자치부문), 경찰청 수사국

(공공기관부문)이다. 인권실천부문 및 인권매체부문의 수상자에게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의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 기초자치부문은 국회의장상, 공공기관부문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들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장애인 인권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함께 다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이대섭 공동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옹호

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찾아 그들의 노고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뜻을 이어 장애인 인권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 축하공연으로 나눔챔버앙상블의 관현악 연주가 진행되었고, 한국장애인인권상 홍보대사인 배우 서이안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장애계 이슈를 뉴스형식으로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 개인예산제도 국내도입 전망 논의

### 영국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은 12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개인예산제도는 개인의 욕구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다.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이 특징이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지난 7월,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연수를 목적으로 자문 교수단과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수팀과 함께 영국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서비스제공 기관의 운영 현황, 이용자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연수기간 참가자들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주도한 민간단체인-컨트롤(In-control)과 운영주체인 버밍엄시의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단체(MANCAP, BILD)를 차례로 방문해 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운영방식, 이용현황을 확인했다.

또 한국장애인재단에서 번역출간 한 『기획총서3, 장애인 중심 사회서비스 정책과 실천』의 공동저자인 버밍엄대학교 로즈마리리틀차일드 교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개인예산제도의 연구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은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사례를 국내에 소개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장애인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국장애인재단의 역할이다. 이

번 세미나를 통해 다름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개요부터 국내 도입과제와 전망에 이르기까지 토론을 벌였다.

김용득 교수는 "이용자의 선택과 주도성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보면 개인예산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앞서서 보편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자격기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성명진 회장이 연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준이 확립돼야 한다. 서비스 진입 창구는 단일화 돼야 하며,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성명진 회장은 영국에서 개인예산제도를 개발하고 정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비영리조직 '인컨트롤'에 대해 발표했다. 인컨트롤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운동에 영향을 받아 사회 돌봄 지원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와 자기주도지원 개념을 개발하고 정의했다. 2003년 영국의 6개 지역에서 각각 인컨

트에서 적용하는 지원연계, 자원할당체계, 자기주도지원 등을 개발해나갔다. 그러한 시범사업 결과 비용 증가 없이도 지속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13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고, 결국 국가 정책이 개인예산제도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성명진 회장은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가치로 둔 비영리조직의 작은 움직임이 영국 사회 돌봄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 실무자 간의 정보공유 및 결속력 강화 도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는 지난 11월 20~21일 경기도 양평쉐르빌파라다이스연수원에서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

크숍을 개최했다.

장총련 회원단체 실무자 중 64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기 교수의 '행복, 연대 그리고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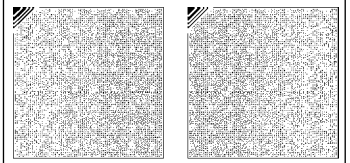
국가'에 대한 특강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저녁에는 한국HDR조형관 대표가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의 시간을 진행했다.

이어서 둘째 날에는 각 장애인단체의 역점사업을 토대로 한 퀴즈대회를 열어 단체 사업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실무자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했다.



장애인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활동지원제도 예산 확대 요구 커져

## 현실성 없는 단가...서비스 질 하락 필연적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 활동지원 제공기관 예산 확대 촉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7개 단체는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는 2014년 기준 이용자 5만 2천여 명, 활동지원기관 953개소, 활동보조인력 4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제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비용은 시간당 8,810원으로 월 평균 보수는 약 85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8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인정했으나 현실적으로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리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용자보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다 보니 활동보조인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고, 법정 시간으로 생활하기 힘든 활동보조인도 되도록 많은 시간을 근로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주어진 단가 안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키며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활동보조 급여는 일반 시급 8,810원, 야간 및 공휴일의 경우 50%를 가산한 1만 3,21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단가의 75% 기준에 퇴직금을 위시한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하면, 이미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규정이 되며 단가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 위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제공기관이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보장하며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소리 높여 호소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며 기관들에 법정수당 의무를 지킬 것을 통보했다. 이에 제공기관들은 “제도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 설명 없이 제공기관을 범법기관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활동지원제도의 성숙한 제도 안착과 운영을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급여 보장과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 제공기관 운영 현실을 담보한 적정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내 걸고 30일 기자회견을 한 7개 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토론회

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12월 7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200여 명의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활동지원제도의 정착 방해요인으로 낮은 서비스 단가를 꼽았다. 활동지원 시급은 방문요양, 노인돌봄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비스 단가가 낮음에 따라 돌봄 제공 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서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을 하기 어렵다. 제공기관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전경.

경우 고용주로서 활동보조인에게 법정수당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기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지원 증액을 주장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단가를 1만 원 정도로 인상해야 다른 유사 돌봄 서비스와의 단가경쟁에서 뒤지지 않아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본 바우처 방식을 활용해서 기본단가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정책국장은 “2007년부터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에게 주어진 것은 지침뿐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지침만으로 완벽한 운영을 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원만하게 되어야 원활한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실적 단가를 적용한 후 추경 예산 마련이 절실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한 제공기관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활의료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의료접근성 보장이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을 정의해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재활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연계해 구축하도록 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 정보·통계, 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침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 보건과 의료의료 위한 기획·교육 등을 제공하게 명시했다.



#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방안 시급

## 성공적 사회통합 위해 안정적 고용 뒷받침 돼야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은 2011년 말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105만 3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약 76%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월 평균 수입은 약 59만 원으로 약 135만 원인 남성장애인의 43%에 불과했다.

우리사회에서 교육수준은 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여성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은 질 낮은 고용으로 연결돼 소득과 정서적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여성장애인 고용실태 및 현황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12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14년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여성장



'여성장애인 고용실태 및 현황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전경.

애인의 경제활동 비율은 21.9%로 49.4%인 남성장애인의 절반 가량이었다.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도 남성장애인에 비해 절반 정도 낮다"며 "여성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그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또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여건임에도 정부는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를 중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여성장애인의 기회 습득 축소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교육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여성특화 직업재활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여성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이 장애유형별로 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고, 해당 직종에 여성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여성의 경우 우선 취업직종 중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선택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취업하면 된다.

조호근 센터장은 "장애인 고

용률을 높이는 것은 복지 측면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사회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가 노동인구의 극심한 공급부족을 겪기 전에 종래 고용에서 소외되었던 여성, 장애인, 고연령자 등의 사람들을 대안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김수영 장애인고용과장은 "여성장애인의 고용지원 확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고용노동부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영역 및 직무를 개발해 여성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의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직무 개발 현황을 전달했다. 청각장애의 경우 네일아트 직종, 지체와 정신장애는 힐링숲야생화지도사, 지체·지적·정신장애의 경우 요양보호 및 보조직종을 개발해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며, 향후 경영·회계직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주차가능" 표지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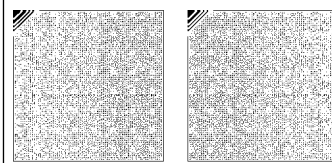
##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합니다.
-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3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최초 1회 인증)
- 4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릅니다.
- 5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부를 클릭해 촬영합니다.
- 6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신고위치 수정가능)
- 7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3회 경북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 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역량강화 실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12월 7일 도내 23개 시·군 지체장애인지도자를 대상으로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장애인 지도자 역량 및 자질’ 강화를 위한 ‘제23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천년! 신도청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이라는 주제로 세상을 더욱 희망차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장애인 리더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체장애인을 대변하며 장애인 복지를 선도하는 주체적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과 지도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대회는 평소 사랑과 봉사로 장애인의 재활과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장애인부모 가정 또는 저소득 가정에서 평소 뛰어난 학업성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평소 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감 표창이 이루어졌다.

김영식 협회장은 “경북도 내 지체장애인을 대변하는 리더로서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고 응집력을 강화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도내 장애인복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광림 국회의원, 장대진 도의회의장, 김종수 복지건강국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역장애인들을 격려했다.



제23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전경.

## 다시 한 번 사랑의 서약

### 강서구장애인합동결혼식 4쌍 화촉



결혼식을 올린 4쌍의 부부와 주례를 선 김광환 중앙회장 등 내빈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구지회(지회장 진형식, 이하 강서구지회)는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별도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부부의 연을 맺으며 살고 있는 장애인부부 4쌍을 모집해 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

11월 25일 일산 백석동 퀸스웨딩홀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지인 및 하객 300여 명이 모여 다시 한 번 사랑의 서약을 하는 부부들을 축하했다. 합동결혼식의 모든 준비 과정은 강서구지회에서 주관했으며, 장애인들이 식진행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식

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해 장소선정 및 진행 과정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주례를 맡고, 손영호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과 진형식 강서구지회장이 대표로 혼주역할을 맡아 화촉을 점화했다. KBS1TV의 사랑의 가족의 MC 이성민,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강서구청 노현송 구청장이 축전을 보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김정록 국회의원, 황준환 시의원, 박마루 시의원 및 25개구 서울 협회의 지회장들이 참석해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식의 준비부터 진행과정, 결혼식의 영상은 KBS1TV의 사랑의 가족 프로그램의 12월 26일 연말 특집방송으로 방영된다.

과 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지난 12월 15일 김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이번행사는 당초 예상인원을 초과하는 250여 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해 파주, 구리, 남양주, 안양, 성남, 안성 지회장 등 많은 지체장애인 지도자들과 유영록 김포시장, 유영근 김포시의회의장,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관내 여러 단체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포시지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포상의식품협의회는 회장사인 (주)고향식품을 비

## 어울림 한마당 봉사회, 경주시지회 후원

### 지역 장애인 위한 라면 16박스 전달



어울림 한마당 봉사회가 경주시지회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지회장 이상인, 이하 경주시지회)는 11월 26일 경주 관내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 한마당 봉사회(회장 정형화)로부터 지역 장애인에게 전달할 후원 물품으로 라면 16박스를 후원받았다.

이날 후원 물품 전달식에는 어울림 한마당 봉사회의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경주시지회 임직원들과 화합을 다지며 지역 봉사활동 활성화의 의지를 전달했다.

어울림 한마당 봉사회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사랑나눔 실천을 통해 생명존중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따

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년째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어울림한마당 봉사회 권윤옥 분과장은 전달식에서 “앞으로 봉사회단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지역사회에 사랑나눔 문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인 지회장은 “어울림 한마당 봉사회가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나눔문화를 실천하며 여러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 진심으로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하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당부했다.

한편 이경규 지회장은 한해 지역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꾸준히 후원한 김포상의 김남준 회장, (주)고향식품 신복순 회장, (주)해여름 한규모 대표, (주)오스티엄 정하영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송년 사랑의 나눔 잔치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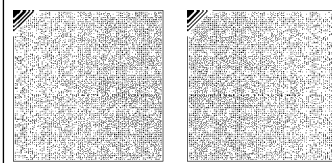
### 김포시지회, 장애인 화합과 복지 발전 기원



김포시지회가 송년 잔치를 열고 지역 장애인의 화합과 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지회장 이경규, 이하 김

포시지회)가 송년 사랑의 나눔 잔치를 열고 지역 장애인의 화합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공무원 교육

## 담당공무원 및 센터팀장들의 이동편의시설 이해 도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기호, 이하 이동편의센터)는 12월 16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과 더불어 올해 2월 정부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 등이 진행됨에 따라 이번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윤진훈 팀장, 이동육 주무관과 31개 시·군청 담당공무원 및 편의센터 팀장들이 참석



'2015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교육'의 강연 모습.

했으며, 이동편의센터 이진욱 국장, 홍승표 담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재원 팀장, 남양주 장

애인편의센터 염진영 부장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동편의센터 이진욱 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과정 및 이동편의시설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여

이동편의센터의 역할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홍승표 담당은 경기도내 154개 도시철도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장애인공단 서재원 팀장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남양주 장애인편의시설 염진영 부장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강의는 참석한 담당공무원 및 센터팀장들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동육 주무관은 시·군청 공무원들에게 "이동편의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올바른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 지역 장애인 인권전문가 양성한다

### 충남장애인민원상담소 '지역장애인 행복지킴이 사업'

충청남도장애인민원상담소는 지역장애인 인권지킴이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인권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삼성디스플레이(주)의 후원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하고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하는 2015 행복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역장애인 행복(인권)지킴이 사업'이 선정돼 진행하게 됐다.

12월 3~4일 공주 고마센터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지역장애인 인권지킴이 신청기관 25곳의 9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류인덕 소장이 '장애인 인권



충청남도장애인민원상담소가 인권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과 차별금지'를 주제로 장애인 인권강화에 대해 강연 했으며, 다음으로 충남장애예방센터 김은성 대표가 '인권(권리) 이야기'를 주제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대하여 강연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 지역장애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인권전문가 역량강화에 꾸준히 힘쓰고, 인권전문가들의 활발한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지역장애인들의 권익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장애인에게 공연 선사



지역 장애인들이 제주나눔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손복남, 이하 제주시지회)는 12월 1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2015 제주나눔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제주시지회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 및 가족 150여명이 복지관에 모여 연주회를 경청했다.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시민 오케스트라인 제주나눔오케스트라는 2011년, 50여 명의 단원으로 창단해 꾸준히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공연을 선사해 왔다.

이번 음악회는 이동호 지회장의 지휘로 신은숙 소금연주, 소프라노 김은영, 모드리기 합창단과 함께 협연을 했다.

## 용인시지회, 이은경 시의원에 감사패 전달

###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 공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는 12월 8일 '제22회 장애인 연말 초청 위안행사'를 맞아 용인시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증진 및 편의시설 개선에 기여한 이은경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근 이은경 의원은 시의회 자

유발언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공청사 편의시설 적정설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 편의시설 설치 시 용인시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적극적인 기술자문 요청을 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매뉴얼 책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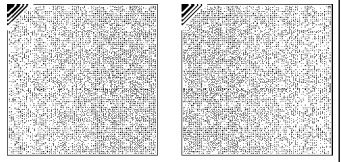
잘 활용하도록 주문 강조했다.

한편 이은경 의원은 지역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 및 시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시지회가 이은경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제24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합동결혼식

## 예식 치른 5쌍 행복한 새 출발 다짐



제24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합동결혼식 기념 촬영 모습.

지난 11월 20일 인천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제24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열렸다.

이번 합동결혼식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 5쌍이 화축을 밝혔다.

이날 장애인부부의 행복한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김종권 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동연수지사 우제광 지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정호연 지사장, 등 하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최성규 총장의 주례로 예식을 치렀으며, 육군17보병사단 전차대대 예도단이 예식을 빛내 주었다.

혼례비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인천광역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국민연금남동연수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육군제 17보병사단, 대우건설(송도에듀포레프르지오현장),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석·박사 원우회, 인천로얄호텔, 체리웨딩, KT 인천지사, 힘찬병원 등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 김천시지회 임원동계수련회 영호남교류

### 서로 간 소통 통해 양 지회 발전 계기 마련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지난 11월 19일 무주리조트에서 임원동계수련회 및 군산시지회와 영호남 교류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동계수련회는 지회 임직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8시 직지전 고수부지를 출발, 무주리조트에 도착 군산시지회 임직원들과 함께 개회식과 특강, 레크리에이션 순서로 영호남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개회식에 이어 '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한 소통의 스킬'이란 주제로 장정자 강사가 특강을 한 후 전체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영



김천시지회가 무주리조트에서 임원동계수련회 및 군산시지회와 영호남 교류행사를 실시했다.

호남 임직원들이 웃음바다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친교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문화탐방으로 무주 양수발전소 홍보관과 머루와인동굴을 관람했다.

박선하 지회장은 "군산시지회

와 김천시지회가 뜻 깊은 교류의 장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서로 힐링하고 소통하며 임원들의 역량강화로 양 지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충북 교육청 여성공무원, 진천장북 후원

### 지역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 위해 사용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직 여성공무원협의회 진천군지회가 진천장북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직 여성공무원협의회 진천군지회는 12월 3일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 이하 진천장북)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진천장북은 이번 여성공무원협의회의 후원금을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명수 관장은 "소중한 후원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영천장북에 김치 전달

### 저소득 장애인 대상 한방 김장김치 105박스 기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영천시연합회가 영천장북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영천시연합회(회장 이영화, 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월 28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2회 한방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틀 후인 30일 연합회 관계

자 6명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을 방문해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기부한다며 한방 김장김치 105박스를 전달했다.

연합회 측은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들께 정성으로 담은 가치 있는 선물을 나눠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한방 김치를 드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이제근 관장은 "후원 받은 한방 김치는 복지관 이용고객 및 지역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마사회, 연수구지회 물품 후원

### 생필품세트 지역 장애인 300여 가구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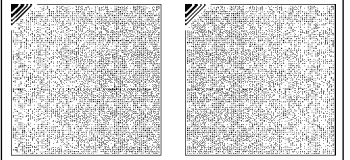
한국마사회 연수점이 연수구지회에 생필품세트를 기부했다.

지난 11월 26일 한국마사회 연수점은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지회장 정인식, 이하 연수구지회)에 연말맞이 장애인 돕기 생필품 300세트를 기부했다.

연수구지회 측은 "10여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어온 한국마사회 연수점의 후원에 감사하다"며 "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연수구지회는 후원물품을 지역 장애인 300가구에 골고루 전달했다.



# 성남장복 송년잔치 7080콘서트

## 재가장애인 100명 초대해 연말 마무리



송년잔치 7080콘서트의 공연 모습.

성남시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성남장복)은 12월 16일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100명을 복지관으로 초대해 ‘송년잔치 7080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송년잔치는 한국포장기계협회가 후원했고, 더 나누리 공연팀의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다. 더 나누리 공연팀에 소속된 가수(백미현, 장운, 진우, 선우진, 박보선, 하비, 이은희)들은 흥겨운 노래로 콘서트의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제자리에서 춤을 추거나 환호하며 호응하는 등 제각

각의 모습으로 즐거움을 표현했다.

이날 후원금을 전달한 한국포장기계협회장은 “성남장복에 처음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 이번 후원이 밑거름이 되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랜만에 외출한 홍○○(지체 1급) 씨는 “집에만 있다가 송년잔치에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가수들의 노래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다. 지금의 기분과 느낌으로 201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 처인장복 성장멘토링 연말 사례발표회

### 저소득 장애가정의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만남 호응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처인장복)에서 진행한 ‘2015 장애가정청소년 성장멘토링’ 사업의 마지막 종결식인 연말 사례발표회가 11월 28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2015 장애가정청소년 성장멘토링(이하 성장멘토링)은 우체국 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이어 2년째 처인장복 진행하

는 사업이다.

성장멘토링은 저소득 장애가정의 초등학생 멘티가 대학생 멘토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는 사업이다. 총 9명의 멘티에게 4월부터 12월까지 ▲건강검진(2회) ▲건강관리(28회) ▲학습지원(28회) ▲문화체험(4회) ▲1박 2일 캠프(1회) ▲교사상담(1회) ▲포레상담(1회) ▲부모상담(1회) 등을 지원했다.

한 멘티 부모님은 “선생님이 아이를 잘 지도해 성적이 많이 오르고, 아이도 멘토 선생님을 잘 따랐다”며 종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말 사례발표회를 통해 2015년 성장멘토링은 종결하였으며, 2016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지역연계팀(Tel.031-320-4831)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애가정청소년 성장멘토링 사례발표회 기념 촬영.

## 농협은행 홍성군지부, 홍성장복 쌀 지원

### 지역 저소득 장애인에게 쌀 40포 전달



농협은행 홍성군지부가 홍성장복에 쌀을 지원했다.

농협은행 홍성군지부(지부장 이범규)는 12월 4일 홍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호현, 이하 홍성장복)에 쌀을 기부했다.

이날 농협 측은 지역 저소

득 장애인을 돕고 싶다며 20kg쌀 40포를 전달했다. 홍성장복 측은 “기부받은 쌀은 복지관 이용자와 재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장복, 장애인과 합창마당 공연

### 2시간 동안 성공적인 공연 펼쳐

11월 24일 의정부시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 꿈의소리 합창교실은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2015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합창마당’ 공연을 했다.

꿈의소리 합창단원은 공연을 위해 현 의정부시 유스챔버(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의정부 드림콰이어의 수장인 김민철 지휘자와 김배연 반주자의 진두지휘

아래 올해 3월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했다.

이번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협업사업을 통해 복지관 꿈의소리 합창교실 단원들은 예술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2시간여 동안 이루어진 공연에서 단원들은 단독 공연 4곡, 파트별 공연 4곡, 드림콰이어와의 연합 합창 4곡을 완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의정부장복 측은 “합창교실 단원들은 장애·비장애를 넘어 모두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예술문화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큰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의정부장복은 장애인 이용고객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계속 전파하고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중증장애인 가족 문화여가 나들이’ 마무리

## 감정소통으로 삶의 행복을 물들이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북)은 11월 26~27일 이틀간 문경 STX리조트에서 박홍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장, 이달분 장애인부모회 문경시지부장,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가족 문화여가 나들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감정소통으로 삶의 행복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 24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장애인, 보호자, 자원봉사자, 관계자가 함께 어울리



문경장북의 ‘중증장애인 가족 문화여가 나들이’ 마무리 행사 기념 촬영.

는 감정소통 특강, 웃음치료, 문

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

다음날 행사는 중증장애로 인

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정

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더불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영화 관람을 통해 친밀감 형성을 도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증장애인의 모친은 “아들과 함께 다양하고 활기찬 문화여가 나들이를 체험해 즐거웠다”며 “앞으로 자주 야외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훈 관장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소외 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은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마당 펼쳐

### 김천장북, 장애인 성공적 재활 도운 은인 표창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에서는 12월 16일 이용고객 작품 발표회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 도운 은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복지관의 해도두리 합창단, 해금공연단, 수화공연단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또 행사장 입구에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한 해 동안 복지관을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한지공예, 미술, 클레이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2부 행사 ‘은인들과 함께하는 2015 행복 한마당’에서는 한 해 동안 복지관에 관심과 사랑을 보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천시장 표창은 김천농협 농가주부모임 박윤숙, 시설봉사단 송말순, 국화봉사단 임진향, 김천농협 부녀회 강원화 씨가 수상했고, 김천시의회 의장 표창은

농가주부모임 김천시연합회 김순교, 무궁화봉사단 김호숙 씨가 받았다.

김천세무서장 표창은 대한산악연맹 경북 김천시연맹 정문호 씨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표창 이웃사랑봉사단 하승희 등 4명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표창은 경북보건대학교 보건복지과 등 4팀(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운영위원회, 장애인종



은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마당에서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합복지관장 표창, 관장 감사장 등을 전달하며 장애인 재활을 도운 이들을 격려했다.

3부에서는 경상북도기능봉사회가 축하공연을 펼쳐 즐거움을 더했다.

박선하 관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지역장애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헌신적인 애정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애쓴 은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 2015 달구벌여성문화대학 수료식

### 한해 결과물 발표 및 전시



2015 달구벌여성문화대학 수료식 공연.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은 11월 20일 복지

관 강당에서 2015년 달구벌여성문화대학 수료식을 실시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동안 배운 강좌의 결과물을 수료식을 통해 발표 및 전시하고 한해의 진행사항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강생과 수강생 가족 등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수료식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그동안 달구벌여성문화대학의 우수 강사 및 수강생을 선정해 표창장 및 수료증을 수여했다. 2부에서는 밸리댄스, 나이트&방송댄스, 난타댄스, 라틴댄스, 다이어트댄스, 스텝박스 수강생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공연을 열정적으로 펼쳤다. 아울러 캘리그라피&POP와 퀼트공예 수강생들의 작품을 1층 로비에 전시해 널리 알렸다.

## 달성장북-보강병원 지정 의료기관 협약

### 복지관 이용자 건강관리와 진료편의 제공

지난 11월 26일 의료법인 보강병원(이사장 지용철)은 달성군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진료편의를 위해 달성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북)과 지정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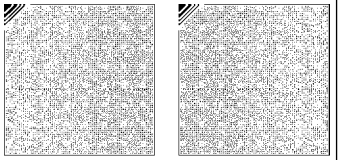
보강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성장북 이용자들에게 꾸준한 건강관리와 효과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지역 소외계층의 의

료분야를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우선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소 건강관리에 취약한 이용자들이 진료편의 및 건강 강화를 제공받아 건강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보강병원과의 장기적인 연계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굿바이 2015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요 이슈 돌아보기

1월

### ■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임원, 내빈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며 장애인 복지발전을 기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1월 28~29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2015년 신년 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고 400여 명의 전국 지체장애인지도자들과 한 해 실천 계획을 설계했다.

이날 지장협은 전국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별 장애인 인권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인권 향상을 결의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추송근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 명예위원장을 시작으로 고형호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 장애인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 ■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전국 순시



1월 14일 김광환 중앙회장이 경남 협회 초도순시를 진행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17개 시·도협회 및 시·군·구 지회와 법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순시에 나섰다. 이번 순시는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안을 파악하고 2015년 사업 계획을 점검해 장애인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1월 14일 경남을 시작으로 3월까지 전국을 방문해 지역 협회와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5월

### ■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5월 9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 최고 기록 보유자인 스위스의 마르셀 후이 풀마라톤 2연패를 달성했다.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새로이 추가된 핸드사이클 하프 종목이 눈길을 끌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린 어울림 부문 참가자들은 차별 없는 축제를 즐겼다.

한편 선수와 자원봉사자, 관객 등 총 1만 500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선수안전 및 최적화된 노선관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교통통제 등 전반에 걸쳐 원활하게 치러졌다.

6월

### ■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가



사이드 이벤트 전경.

지장협은 6월 9~11일에 뉴욕에서 열린 제8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대표단에 함께 하며 전 세계 장애인에게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 알렸다.

지장협 홍현근 국장은 사이드 이벤트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편의증진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통한 어매너티 소사이어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 네팔지장협 지진피해 지원



네팔지장협이 지진피해자를 애도하며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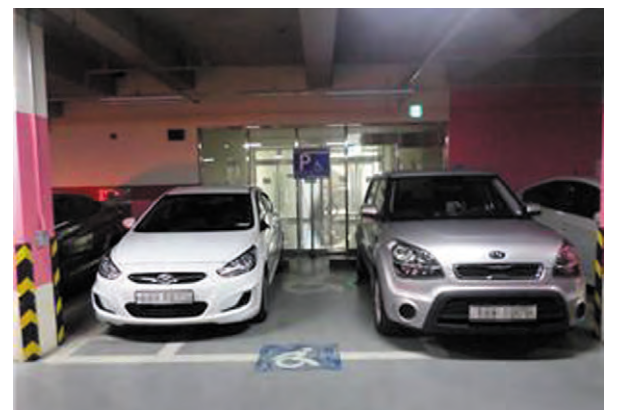
지장협은 6월 24일 후원금 및 물품 약 200만 원을 네

팔지체장애인협회(이하 네팔지장협)에 발송하며 네팔의 지진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네팔지장협은 "후원금과 물품은 재난에 취약해 더 큰 피해를 본 지체장애인들의 피해복구와 재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7월

### ■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주차위반 차량.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7~8월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5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시설인 5000여 개소의 점검결과 가장 부적정한 설치율을 보인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으로 34%에 가까운 시설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현황으로는 주차표지 없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가 612건, 올해 개정된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14건이 적발됐다.

8월

### ■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8월 26~27일에는 예산 덕산스파리조트에서 '2015년도 제1차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이 열렸다.

연 2회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1차는 10개 시·도협회 및 산하지회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차는 11월 4~5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7개 시·도 협회 및 산하지회 250여 명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장애인 민원인의 신속한 고충 해결을 다짐했다.



## ■ 장애인 국가대표와 유소년 선수 멘토링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멘토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소년 운동선수를 돕는 멘토 활동을 시작했다.

지장협은 8월 20일 세빛섬에서 멘토 교육을 개최해 장애인 국가대표들을 격려하고, 유소년 운동선수를 매칭해 멘토링 사업을 실시했다.

멘토링 사업은 ‘세빛섬과 함께하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멘토링하던 사업들과 다르게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멘토가 되어 비장애인 유소년 선수를 멘토링하며 스포츠계 선배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사업으로 주목 받았다.

## 9월

### ■ 故 장기철 초대회장 10주기 추모식



故 장기철 초대회장 10주기 추모식 기념 촬영.

9월 2일 故 장기철 초대회장 10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고인이 영면한 운경공원묘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추모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

### ■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 시작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 전경.

지장협이 ‘2015년 권역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작했다. 전국 장애인인권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4차에 걸쳐 이뤄졌다.

9월 16~17일 양평에서 1차 교육을 시작해 10월 26~27일 경주에서 4차 교육을 마지막으로 전국 교육을 마무리했다. 총 55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하며 장애인 인권향상을 다짐했다.

## 10월

### ■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 발기인 총회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가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10월 8일, 대한지체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립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에 이어 정관제정, 지장협 회장 및 임원 구성, 2015년과 2016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 ■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전경.

10월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단체줄다리기, 휠체어육상 200m릴레이, 스탠딩육상 400m릴레이, 좌식배구 등의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고 시범종목으로 한궁 경기를 진행했다.

### ■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장협은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모범 중증장애인 부부 37쌍을 초청해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장애인 배우자를 헌신과 사랑으로 보살펴온 15명의 중증장애인 배우자가 표창장을 받았다.

### ■ 전국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 연수

10월 28~29일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열린 ‘2015년 전국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 연수’에 지장협 산하 전국 장애인 자립작업장 경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장애인자립작업장 경영자 연수 기념 촬영.

### ■ 제4차 아·태장애인대회 참여

아시아·태평양장애인연합 주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 48개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참가한 ‘2015 아시아·태평양장애인대회’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열렸다. 지장협 홍현근 국장은 사이드 이벤트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편의시설증진을 통한 접근성’을 발표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과 전망을 밝혔다.

## 11월

### ■ 제2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김광환 중앙회장과 내빈들이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제2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가 11월 6~9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예술제는 서양화, 동양화, 서예, 사진, 휴대폰사진 부문에서 총 51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 ■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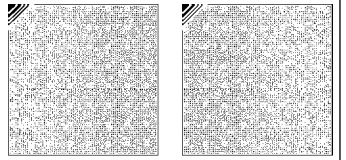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지장협은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와 내빈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체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자랑스런 지체장애인상 대상’을 비롯해 봉사대상, 화합상, 자립상, 지도자상, 모범상, 최우수협회상 등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가화상 수상 후기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 열여덟에 만난 사랑

저는 농사를 짓는 가난한 부모님의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3살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11살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사랑에 목마른 채 오빠와 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18세 어린나이에 주변 어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일본 뇌염으로 언어장애와 뇌성마비로 손과 팔이 불편한 1급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10살 때 뇌성마비를 앓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말하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타인과 함께 하는 모든 일상이 부담스러워 스스로 자리를 피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따뜻한 마음도 금세 알아챈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 열고 사귀면서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포근하게 기대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감정이 뭔지도 모른 채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시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수발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다른 여자들처럼 임신을 했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신체조건임에도 다른 여성들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아들은 원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름에 빠져 울먹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 회복한 후 둘째를 임신했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탓에 설마 하는 불안한 마음과 기쁨이 오랫동안 교차했습니다.

### 생존을 위한 삶

그러나 아이를 낳은 기쁨도 얼마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매출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노인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동네의 방앗간을 외면하고 다른



동네의 큰 정미소로 몰려갔습니다. 급기야는 생계수단으로 부족해 방앗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욕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생각만큼 수입이 좋지 못해 다른 생계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했고, 손님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매출에 그대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장애가 전염병도 아닌데 편견에 목욕탕을 외면하는 동네사람들을 보며, 우리 부부는 서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민 끝에 눈물을 머금고 목욕탕을 접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하루 종일 참외와 농작물을 키웠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과 80대의 노부모님 봉양부터 가사까지 맡은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앞만 보며 일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 암과 투병

하루도 열심히 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땀 흘리며 살아온 제게 또 한 번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정기검진 결과 위암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인 조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카가 시키는 대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가서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위암뿐 아니라 대장암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천만다행히도 둘 다 초기여서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낫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간호에 매달렸고, 남편은 하루빨리 낫겠다는 강한 의지로 힘든 치료를 잘 이겨냈습니다.

### 결혼한 딸의 고백

남편의 병으로 인해 우리 부부가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밖에 없는 외

### 노경진 · 양순자 부부

동πά은 착하고 살갑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며 제법 효도를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키울 땐 힘이 들어도, 키워놓으면 더 없이 뿌듯한 것이 자식이구나 싶었습니다. 딸을 떠올리며 힘든 세상, 결코 헛되지 않게 살았다는 생각에 혼자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 딸이 결혼 한 후 제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릴 때 가족여행이며 부부여행 다니는 집이 정말 부러웠어요. 엄마아빠는 남들처럼 평범한 몸이 아니어서 늘 우리 가족끼리만 계셨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느라 옆집조차 놀러 다니질 못했어요. 전 그게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결혼하면 가족들과 맘껏 다니고 싶어요. 그게 제 결혼생활의 꿈이기도 해요.”

어린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꺼내는 딸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에 한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 감사는 만병통치약

노부모님을 모시며 편찮을 때 손수 돌봐야 하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치매와 오랜 당뇨에 합병증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가 거동을 못해 대소변을 받으며 간호하고 있지만, 장애인인 자식과 며느리로 인해 고생한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다니거나 주변 품앗이를 하고, 오후에는 남편과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부부는 둘 다 장애인이지만 지금의 삶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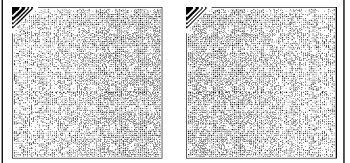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라도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모습이지만 남편의 낯선 시선과 편견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제 자신과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 정정 보도

270호 윤한광 · 전순식 부부 수기는 ‘아름다운 배우자상’으로 정정합니다.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법’ 통과

## 중앙과 시도에 보조기기센터 설치 운영토록 명문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의를 통과,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등을 지원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보조기기의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보조기구의 적절하고도 안전한 사용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노인 및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면서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면서 “법안의 통과가 보조기기에 대한 국산화 보급 및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례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

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보조기기 전시·체

험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조기기 제품 네오메드 ‘관절보호대’

### 허리, 손·발목, 무릎 등을 보호

네오메드는 최근 허리, 목, 손목, 발목, 무릎 등을 보호하는 ‘관절보호대’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설계로 사용자가 착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됐으며, 안정적인 고정력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순환이 잘 되는 메쉬 조직은 사계절 내 통풍이 잘 되며 항상 쾌적함을 제공한다. 또한 장시간 착용 시에도

이질감이 없으며, 몸에 밀착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네오메드 관계자는 “네오메드는 자체 연구 개발한 원단과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에어하이프렌 소재는 가장 얇고 소재의 변형이 거의 없으며 상, 하, 좌, 우로 늘어나는 4ways방식으로 탄력성, 복원력, 착용감과 부드러움이 변치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1965년째 설립돼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오메드는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장인 정신의 기업으로서 특히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생산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국방부와 국내 2천여 개의 의료기 상사와 4천여 개의 약국과 병원 납품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 해외에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CookieJoan** 쿠키조아

www.cookie-tree.or.kr

정성과 사랑 기쁨으로 만드는 쿠키조아

구입 및 단체주문

**031-320-4898**

**쿠키 (세트 상품)** 날개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14,000

**쿠키틀/틀 3종세트**

₩13,000 / 18,000

**마들렌**

₩1,000

**카스테라**

₩1,500

**생크림케이크**

₩20,000원 (2호기준)

**고구마케이크**

₩22,000원(2호기준)

**우리밀6종세트**

₩28,000

**쿠키조아 5종세트**

₩9,000

**우유식빵 / 잠곡식빵**

₩2,500 / 3,000

**소보루빵 / 단팃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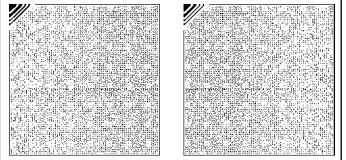
₩800

**모카케이크**

₩20,000원 (2호기준)

**케이크** 주문 후 제작하기 때문에 3일 전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한국 발달장애인 UN 본부서 축하공연

##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감동 선사



UN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연주하는 발달장애아티스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지난 12월 3일 뉴욕에서 개최된 ‘2015 UN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한국 발달장애인 공연단이 전 세계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들 앞에서 축하공연을 해 찬사를 받았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나경원)에서 파견한 ‘2015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참여자로 구성된 공연단은 바이올린 박찬연, 클라리넷 김하늘, 곡슬범, 김범순, 클래식기타 이상현으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을 비롯한 명곡들을 연주했다.

발달장애 공연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한 행사 관계자는 “눈시울이 불거지는 감동을 느꼈다”며 “장애인들의 음악은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공연 내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관람하며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같은 날 저녁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에서 한국, 멕시코, 인도

네시아, 터키, 호주의 모임 ‘MIKTA’가 장애인의 날 기념 리셉션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공연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MIKTA 5개국 대사들은 인사말을 통해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나경원 회장은 ‘평창 스페셜 뮤직 & 아트 페스티벌’ 출신의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 기쁨을 선사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IPC알파인스키대회 양재림 2위

### 2018 평창을 향한 장애인 알파인스키 대표팀의 도전

한국 장애인알파인스키 시각부문의 양재림 선수가 IPC 알파인스키대회 메달의 기쁨을 전했다.

양재림(국민체육진흥공단 알파인스키팀, B2등급)은 12월 1일 캐나다 파노라마 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부 회전 시각장애 부문 경기에서 1차시기 46초56, 2차시기 48초67, 합계 1분35초23으로 2위를 차지하며 한국에 메달을 안겼다.

1위는 영국의 밀리 나이트(Millie Knight, 기록 1분32초83), 3위는 미국의 마넬라 스테이시(Mannella Staci, 기록 1분45초04)가 차지했다.

양재림은 2014년 소치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여자 시각 스키 대회전에서 1, 2차시기 합계 3분5초90으로 아쉽게 4위를 기록했으나, 이 성적은 우리나라 알파인스키 출전 선수 3명 중 최고의

기록으로 향후 메달 진입 가능성을 쏘아올렸다. 양재림과 같이 출전한 가이드 고운소리(비장애인)는 알파인스키 前국가대표상비군 출신으로 양재림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으로 8월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시각장애 스키는 장애인선수와 가이드(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하는 경기다. 가이드가 앞서 출발하고 선수가 뒤따라 출발하



양재림 선수가 알파인스키 경기를 출발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면서 무선장비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으며 경기를 진행한다. 장애 상태에 따라 B1(전맹), B2(2/60시력, 5도 시야), B3(2/60~6/60시력, 5도~20도 시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한편, 슬라롬 남자부 좌식 경기에 참가한 이지원은 1차시기 43초87, 2차시기 46초53, 합계 1분30초40으로 6위를 기록했다.

## 전국 어울림배드민턴 셔틀콕의 향연

### 제4회 아산시장애 어울림배드민턴대회 성황



휠체어 남자복식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제4회 아산시장애 어울림배드민턴대회가 11월 28일 아산시 순신체육관(충남 아산시 풍기동)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 팀을 구성한 ‘휠체어 남·여 복식’, ‘좌식 남·여 4인조’, ‘어울림 혼성 4인조’, ‘지적장애 남·여 복식’ 부문으로

전체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아산시장애인체육회(회장 복기왕)가 장애인배드민턴 인구의 저변확대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이해를 통한 통합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산시장애 인배드민턴협회(회장 엄신호)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

호)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아산시 복지문화국 유근봉 국장,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시의회 김영애, 성시열, 김희영, 이영해 의원, 박노철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병대 아산시탁구협회장, 김길년 아산시 족구협회장, 오형만 아산시사회 복지협의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장애인과 자리를 빛냈다.

유근봉 복지문화국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지역의 장애인체육 저변확대와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장애와 비장애를 막론하고 도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다. ‘다름’이 열정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기준 아산시의회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삶을 뜻깊게 개척해 온 장애인과 그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은 우리에게 생활의 활력소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오늘이 자리는 화합과 나눔의 장으로, 승부도 좋지만 서로 이끌어

주고 손잡아 주는 따뜻한 모습 또한 볼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부산 지역의 김○○ 선수는 “배드민턴에 최적화된 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 즐겁다”며 “경기를 통해 다른 지역 생활체육인과 교류하는 것도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를 주관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2016년 전국체전의 주체도시로서의 책임 있게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의족 찬 프로농구 선수 활약

## 코바체비치, 사고 2년 만에 재기



프로농구 선수 코바체비치가 의족을 찬 채 경기를 치르고 있다. ©REUTERS

지난 2013년 9월, 당시 19살이었던 세르비아의 여자 농구 국가대표 나타샤 코바체비치(21)는 큰 교통사고를 겪었다.

그 날 그녀는 동료 선수들과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사고로 감독과 단장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부상이 심각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그녀는 왼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핸드볼 선수였

던 아버지와 농구 선수였던 어머니의 유전을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키가 컸던 그녀는 188cm의 신장을 이용해 기량을 뽑내던 기대주였으나 순식간에 미래에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수술 후 코바체비치의 재기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2년이 흐른 후 11월 11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경기에 나타났다. 왼쪽 다리에 의족을 찬 채 레드스타 베오그라드(세르비아)의 유니폼을 입은 그녀가 교체 선수로 경기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등 번호 7번을 단 그녀는 상대팀 스투덴트 선수들과 거친 몸싸움을 펼치며, 적극적인 슈팅으로 득점을 올렸다. 큰 키를 활용해

리바운드를 하는 모습도 예전과 다름없었다. 레드스타가 스투덴트를 78-47로 꺾자 이날 5득점을 기록한 코바체비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녀는 경기 후 “지난 2년간의 시련이 꿈같다. 다시 농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코바체비치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회복 과정을 소셜 미디어에 꾸준히 올리며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국제농구 연맹(FIBA) 유럽지부는 지난해 2월 그녀를 ‘유소년 담당 홍보대사’로 임명해 긍정적인 재화에 박수를 보냈다. 어린 농구 유망주들을 격려하며 새 힘을 얻은 코바체비치는 한 달 뒤 자신의 이름을 딴 ‘나타샤 코바체비치

재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부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운동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농구 선수로 재기하기 위한 노력도 치열했다. 처음에는 의족을 차고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걷고, 달리는 데 성공한 뒤엔 점프하고 드리블 훈련도 하며 선수로서의 체력을 키웠다. 현역 선수 못지않은 움직임에 감탄한 세르비아의 명문팀 레드스타가 코바체비치에게 입단을 제의했다. 2년 만의 프로무대 복귀전이 끝나자 BBC 등 유럽 언론은 “의족을 차고 코트를 누비는 프로농구 선수는 전 세계에서 코바체비치가 유일하다”며 찬사를 보냈다.

##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우버 시스템 런칭

### 프랑스 파리 스타트업 ‘휠리즈’ 호평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는 우버 시스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런칭한 이들의 사업의 명칭은 ‘휠리즈(Wheeliz)’다. 장애인을 위한 우버 같은 서비스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과 이 자동차를 빌려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프랑스 매체 ‘매셔블’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휠리즈의 CEO인 샬롯 드 빌모린은 여행을 가던 도중,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는 렌탈비용이 너무 비쌌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없어 크게 낙담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휠리즈를 통한 렌탈비용은

하루에 약 56~66달러(약 6~7만 원) 정도다. 웹사이트에서는 일반적인 렌트가 업체에서 대여하는 비용보다 절반 정도 저렴하다고 밝혔다.

휠리즈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현재 휠리즈에 차량 120대와 이용자 900명이 등록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프랑스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빌모린 CEO는 이 서



장애인이 우버 시스템 휠리즈를 이용하고 있다. ©휠리즈

비스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 운전자

들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어플 또한 런칭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헤드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헤드폰을 개발했다. 이 헤드폰은 건물이나 표지판, 골목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도구다.

MS는 이 기술을 ‘도시 잠금해

## MS, 시각장애인용 3D 헤드폰 개발

### 건물이나 표지판, 골목 등 음성 안내

제(Cities Unlocked)’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다. 시각장애인에게 뽕뽕 뚫인 것이나 다름없는 도시의 복잡한 구조를 소리로 풀어주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MS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안내 기술 개발 계획은 지난 2011년 영국의 맹인안내견 지원 자선단체 ‘가이드독스’와 함께 시작됐다. 도

시 잠금해제 헤드폰은 2014년 처음으로 등장한 첫 번째 버전의 개선형 제품이다.

MS의 도시 잠금해제 헤드폰의 구성은 간단하다. 헤드폰과 스마트폰,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앱)이 전부다. 헤드폰은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헤드폰의 길안내 정보는 스마트폰

의 앱을 통해 전달된다. 리모컨 단추를 누르면 현재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 대한 추가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편리하다.

MS사가 2014년 처음으로 개발한 첫 번째 버전은 단순히 방향을 지시하는 ‘팔각’ 거리는 소리만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헤드폰이었다. 이번에 개발한 도시

잠금해제 헤드폰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3D 사운드 기술이 핵심이다. 도시 잠금해제 헤드폰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주변의 카페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알려준다. 또 주변의 잡음을 차단하는 것을 최소화했다. 자동차나 거리의 소음 등 잡음을 듣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 2015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워크숍

## 전국 270여 명 편의센터 임직원 모여 성황리에 종료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박경준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워크숍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15년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워크숍 참가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장애인 편의증진 기여 임직원 표창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중앙센터장 김광환)는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의 센터장 및 임직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나주시의 후원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임직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2015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2016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편의센터는 2004년에 설립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민원상담, 기술지원,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앙센터를 비롯한 17개 광역센터와 178개 기초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편의센터는 설립 후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편의센터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편의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을 목표로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중앙센터장 및 각 지역의 광역센터장을 비롯해 전라남도 신현숙 보건

지국장, 나주시 강인규 시장 및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과 전라남도의회 의원 등 많은 내·외빈이 워크숍 개최를 축하했다.

또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중앙센터장 표창을 수여했다. 복지부 장관 표창은 인천센터 주영진 과장, 강원센터 마익준 부장, 제주센터 오미영 차장이 수상했다.

중앙센터장 표창은 서울센터 하영아 과장, 광주센터 임대성 팀장, 경기센터 이진욱 부장, 충남센터 홍병우 팀장 및 서울양천구센터 황아름 주임, 대구서구센터 배은영 팀장, 대전동구센터 박병수 팀장, 경기의정부시센터 장석수 부장, 강원원주시센터 정필근 팀장, 전북부안군센터 김상옥 팀장, 전북완주군센터 신은경 팀장, 전남화순군센터 임택진 팀장, 경북구미시센터 이다영 과장을 포함한 총 13명이 수상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 편의센터 역사와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등 특강 진행

김광환 중앙센터장은 특강에서 편의센터 설립과정과 설립 이후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협회가 존속해야 편의센터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장협 30년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지며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켜 조직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자"고 역설했다.

더불어 "직원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관계성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협회와 편의센터의 관계

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항현 중앙회장은 특강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제정한 당사자로서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직원에게는 장애인 당사자인 지역 센터장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며 편의센터 직원들이 더욱 분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이 최근 개정된 편의증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더불어 향후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편의센터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튿날에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강사들의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재원 팀장이 '건축과 장애인', 열린사이버대학교 임재현 교수가 '편의센터 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발표',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이 'BF인증제도 건축물 인증 평가항목별 이해', 한국생산성본부 황규오 전문위원이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위한 스마트워크 적용'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워크숍 특강을 통해 편의센터 임직원 전체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그 외에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리고 직원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편의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300여 명의 워크숍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이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수직원에 대해 중앙센터장 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이 김광환 중앙센터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대기발령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 바탕으로 판단 -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그만두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대기발령이나 보직해임이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해고를 하는 경우보다는 대기발령을 통해 스스로 그만두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

뇌병변 5급 장애인인 김모씨는 8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조직개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맡은 업무를 정지당하고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수시로 팀장 등 회사 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를 폐지하게 되었다며 그만둘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한 경우였다.

대기발령이나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및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직해임은 일시적으로 당해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

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당연 퇴직이나 직권면직 처분이 유효하게 되며,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회사가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을 바탕으로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피상당자의 경우, 자신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보직해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보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50일전에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피상당자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회사 측의 회유나 협박에 굴복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조호근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 주택관련 지원제도

**Q)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내용인가요?**

**A)** 워낙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혼동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큰 대분류 아래 포함된 사업이 섞여서 발생하는 어려

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전국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크게 행복주택과 공공주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 안에 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SH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은 LH의 범주 이외에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등이 추가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류에 의거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의 유형이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Q) 최근 대학생과 관련된 주거복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고가의 학비를 부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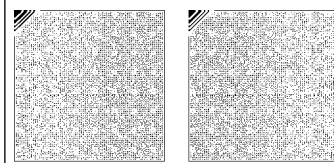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은 먼저 SH공사의 희망하우징이 있습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매입한 다가구주택 및 건설한 원룸(공통·정릉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SH희망하우징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가 해당한다. 또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부모 중 공공임대주택 현 거주자는 제외)·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부모 중 공공임대주택 현 거주자는 제외)·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희망 하우징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

능합니다. 다른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은 희망 하우징은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추면 거의 임대가 가능합니다(문의 : 1600-3456). 또 LH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기초생활수급자가구나 보호대상한부모가정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에 대신해 전세금을 내주는 제도)로 대학생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서 LH공사에 알리면 심사를 거쳐 L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차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3회까지 계약 연장가능하며,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됩니다(문의 : 1600-1004).



#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최소 75만 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예고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 71만 원보다 4만 7,000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는 월 75만 7,000원을 내야 한다. 1/2~3/4

미만일 경우는 월 83만 2,700원을, 1/4~1/2미만일 경우는 월 90만 8,400원을 납부해야 하며, 1/4미만일 경우는 월 98만 4,100원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 270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

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내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http://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여성장애인 고용률 19.8%로 저조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혜택 덜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19.8%로 나타나 취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3일 '여성장애인 취업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성인지통계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수준, 취업한 장애여성의 특성 등에 대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련 자

료를 재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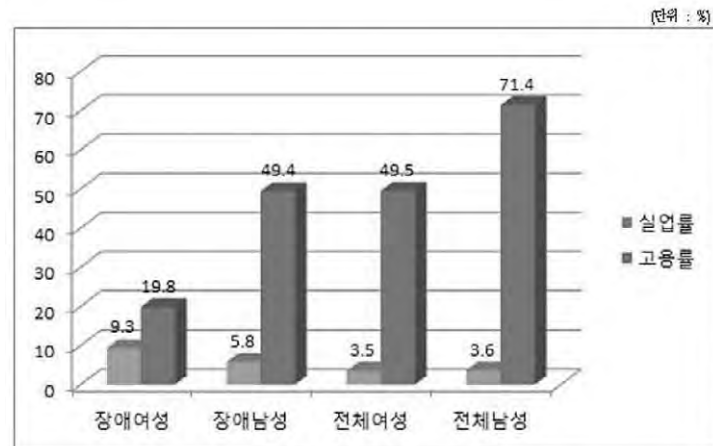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여성(장애인 포함 모든 여성)의 고용률인 49.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편 전체 남성의 고용률은 71.4%, 장애 남성의 고용률은 49.4%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여성장애인이 9.3%, 남성장애인이 5.8%로 여성이 높았다.

또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17.3%에 불과해 전체 여성에 상용근로자 비율인 40.6%보다 상당히 떨어져 고용불안정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혜택 역시 여성장애인이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고용 제도로 고용된 장애인 중 남성은 8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19.5%에 불과했다.



장애여성과 남성, 전체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조사 결과 도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퀴즈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당사자 운동의 재도약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실현을 위한 장애인○○○○○가 열렸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 포털사이트에 직접 문의해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등록하도록 만든 현직 광역단체장은 누구일까요?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mailto: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호 정답

지체장애인의날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 당첨자

전남 진도군	박영실
충남 공주시	이용화
서울 성북구	이명신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위탁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기생충, 담배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결렌징

천연바디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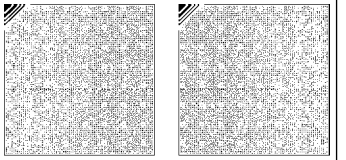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인지예산 도입, 시기상조인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 임상범 부장

## 모든 정책에 장애인을 포함하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제4조 일반 의무 1-다에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회적 개발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을 고려하라는 의미다. 장애인지예산이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장애인 정책을 전담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사업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예산의 형평성 우선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장애인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밀려나기 십상이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인지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차별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근로 기회가 부족한데, 비장애근로자를 위해 예산을 다 사용하기로 한다면 장애인은 그 예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위한 사업 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예산이 사용되도록 형평을 맞춰야 한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영향에 격차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방법이 인지예산이고, 영향평가다.

## 제도 도입 위한 근거 마련 필요

2014년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지난 1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예산은 총 1조 9,1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 355조 8천억 원의 0.54%, 전체 복지재정 106조 4천억 원의 1.8%에 불과했다. 국가재정의 99.5%의 일반 정책 예산에는 장애인을 위한 고려는 전혀 없고,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장애인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일반 정책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은 장애인문제에 대한 정책의 중심점이 시혜적·동정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초적인 인프라 구성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지예산의 제도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평등

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제1항),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제34조 제2항), 장애인의 국가 보호(제34조 제5항) 규정, 「장애인복지법」 상의 제3조(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제4조 제2항(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4조 제3항(장애인 관련 정책의 우선 참여권),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향상 책임), 제10조의2(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 제11조 제2항(장애인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 등을 근거로 장애 형평성을 반영하는 배분구조의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어필해야 한다.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핵심 중의 하나는 장애분리통계 구축이다. 성별분리통계는 현재 통계법에 규정된 통계를 작성할 때 작성기관이 성별 구분 여부 등을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개인적 생활에서 남녀별로 다른 상황을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지예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분리통계라 할 수 있다.

장애분리통계는 성별분리통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성별 분리통계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면 되지만, 장애분리통계는 장애/비장애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장애 안에서도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으로 다시 세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 도입할 경우 기대 효과

장애인지예산제도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아직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지예산 도입’과 관련해 의미 있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장애분리통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지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지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참고자료

《장애인지예산 제도 서울설명회 자료집》,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4  
《인지예산 없이 사회통합 없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 2014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1호 2015년 1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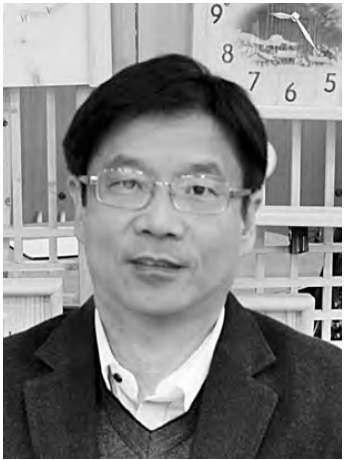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news@kapp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애계 인사이드 /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우승윤 원장

## 진정한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을 다짐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나는 올해 컴퓨터에서 문서 작성 때나 결제 과정에서 어떤 키워드를 많이 두드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역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다.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시설장으로서 당연하다 하겠지만 오늘은 내가 사용한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협회, 장애인당사자 등 많은 장애인 키워드 중 장애인당사자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본다.

내가 산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라는 큰 도시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1980년 초반만 해도 장애인 취업은 고사하고 외출조차 맘대로 못하는 게 일반이었다. 우리 장애인에게 운전면허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 시기였으니, 장애인복지라는 것은 먼 세상의 말로만 들렸다.

이제는 전동휠체어가 거리를 누비고 각종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생겨났다. 또 장애

인을 고용하는 업체들도 많아졌다. 물론 더 발전해야 하지만 세상이 엄청 바뀐 것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비약적 장애인복지 발전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1980년대에 본격화됐다. 당시에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투쟁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쟁취한 부분이 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지각변동의 중심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있었다.

나는 1994년 4월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에 12번째로 등록한 정회원이다. 그 때부터 우리 협회의 역사와 업적을 지켜본 나로서는 감탄할 일도 많

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겪었다.

우리 협회는 장애인당사자만이 정회원으로 등록하고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당사자주의 단체다. 장애인당사자주의라는 말은 간단히 장애인이 '그들'에서 '장애인당사자'로 시점이 전환된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배제되었지만, 이제 장애인 문제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참여하고 해결하겠다는 주도성을 갖는다. 장애인들의 문제를 장애인이 결정한다는 생각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주의는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전제이며 장애인 복지를 이끌어 온 중요한 이념이지만, 몇몇 이익집단이나 특정

인사가 정치적 입적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이들은 당사자주의를 지극히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사용해 집권에 성공한 사람일 뿐,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해 몸바쳐 투쟁한 장애인지도자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2014년 신년인사회를 통해 지장협 윤리헌장을 채택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 정직한 업무 수행, 신뢰 받는 조직문화 창출, 공익 발전 추구 등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우리 협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윤리헌장을 준수하며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이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이뤄가기를 바란다. 나도 미력하나마 우리 협회의 건강한 변혁에 동참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현장의 눈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이선화 사무국장



##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즐이기 등도 실천했다. 운동을 시작한지 한 달 후 건강한 수치 변화가 나왔다. 시기적절한 건강검진과 알맞은 처방, 전문가의 생활개선 플랜이 없었다면 건강을 되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체험한 이후 건강검진과 생활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우리 복지관 이용고객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복지관 이용고객은 60% 이상이 지체나 뇌병변장애인으로 운동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복지관은 연 8회 의정부 병원과 연계해 혈압, 혈당 체크 및 건강관련 교육, 대사증후군 검사, 한방진료, 치과진료, 운동처방 등을 실시해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우리 고객들은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받기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신장이나 몸무게를 모르는 고객도 있었고, 정기

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고객이 태반이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지역의 20세 이상 1~3급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의 신장을 모르는 장애인은 15.9%였고, 몸무게를 모르는 장애인은 16.8%로 나타났다. 사보협이 없는 장애인은 56.8%였으며, 정기적 진료나 치료를 받아본 적 없는 장애인이 52.9%나 됐다.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 고객들의 상황도 위의 실태조사와 비슷했다. 그러나 우리 고객들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개선됐고, 만족도도 높아져 더 활기를 띠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에는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 그러한 가운데 회소식이 들렸다. 12월 9일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

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돼 정착하면 장애인 의료복지 접근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인프라가 강화되며 의료인의 인식개선 등과 같은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시행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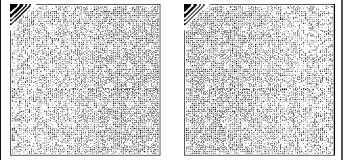
법 제정을 둘러싸고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단 시간에 장애인의 삶이 바뀌진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우리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을미년이 시작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다. 내가 올해 세운 목표 중 첫 번째가 건강 관리였다. 작년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에 약간의 고지혈증 증세, 체지방 증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우리 복지관에 대사증후군 증상이 있는 직원이 많으며 3회에 걸쳐 관리를 해 주었다. 대사증후군이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의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다.

나는 처방에 따라 꾸준히 운동하며 관리했다. 엘리베이터 안타고 경사로나 계단이용하기, 빠르게 걷기, 간식





복지마당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 지장협,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나자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우리의 자랑스런 선배들은 그동안 차별 받고 소외되어 왔던 동료 장애인들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재를 털어가며 우리 지장협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로지 힘없고 가난한 우리 장애인들도 대접받고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일념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각 지역의 장애인지도자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장애인 회원들을 모아 조직을 결성하였고, 어느덧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애인 회원과 지방조직을 갖춘 당사자 단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협회의 역사발전과 더불어 능력 있고 참신한 많은 장애인 지도자와 인재들이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로 진출하는 인재등용문의 발판으로서 우리 지장협은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협회가 없었다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장협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

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반면, 그 격심한 변화의 과정에서 때로는 많은 시련과 증상모락을 받는가 하면, 일부 극소수의 조직 구성원들이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여 협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 사회에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장협이 바로서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바로 선다는 말이 정론이 될 정도로 우리협회의 책무가 더욱 엄중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지장협이 설립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내년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도 가슴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장애계도 변해야 합니다. 장애인단체를 통해 개인이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소신 없이 인기애 영합하고 포퓰리즘에 젖

어 올바른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본인이 욕먹기가 두려워 전체 조직을 욕먹이는 나쁜 악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지장협이 선택하고, 지장협 회원들이 행동하면 그것은 언제나 정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늘 외쳐왔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라도 진실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음 선거에서 뽑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형식적으로만 장애인복지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의 민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 곳곳이 활동하는 우리 장애인 회원들은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공익을 위해 출선수범하는 지장협 조직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늘 부르짖는 우

리 지장협의 미션인 「장애인에게는 희망의 동반자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장협」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는 원숭이의 해이며, 60갑자로 병(丙)신(申)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비하하여 사용되던 단어와 독음이 같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석해보면 붉다는 뜻을 지닌 병(丙)과 원숭이를 뜻하는 신(申)이 만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붉은 기상과 원숭이의 재주와 영민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잔재주에 의지하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지장협 30년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리더스토리

김형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



경제난으로 가족과 이웃에 소외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소식을 뉴스와 신문을 통해 많이 듣게 된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에 이어 지금은 지식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이 인간의 생활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고, 핵가족화로 인해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노인이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또 바쁘게 돌아가는 세

## 함께 꾸는 꿈, ‘유토피아’

상에서 여전히 돌봄노동이 사회화되지 못해 여성이 일과 돌봄을 병행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따라 이동편의와 각종 평등한 권리 보장, 활동보조 등을 지원을 받으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소식이 매년 끊이지 않는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지금 이

시점에서 500년을 거슬러 토마스모어의 저서 『유토피아』를 꺼내본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U(있다)와 topia(없다)라는 말을 결합한 단어로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한다. 토마스모어는 이 책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란 무엇인지 4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첫째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고 공동재산을 채택하며, 둘째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양보하는 사회다. 셋째, 최소한의 도덕적인 법률로 사회질서가 지켜지며, 넷째는 전쟁과 폭력을 불결하게 여기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회다.

유토피아,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사회다. 특히 책에 ‘기형인 사

람이나 불구인 사람을 보고 비웃으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은 사람을 흉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유토피아인은 장애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차별하는 이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유토피아인이 완전한 평등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평등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기본적으로 다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이를 비판하는 도덕률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남과 다르다면 틀린 것처럼 여겨 차별을 하는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저 장애인이란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 2008년 4월부터 2014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장애인 차별 진정건이 7683건이다. 간단한 통계정보만 봐도 유토피아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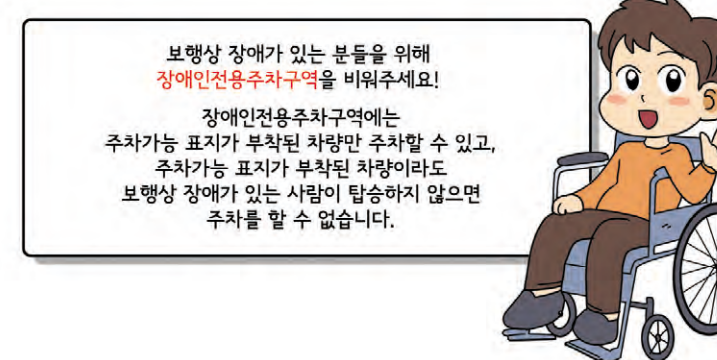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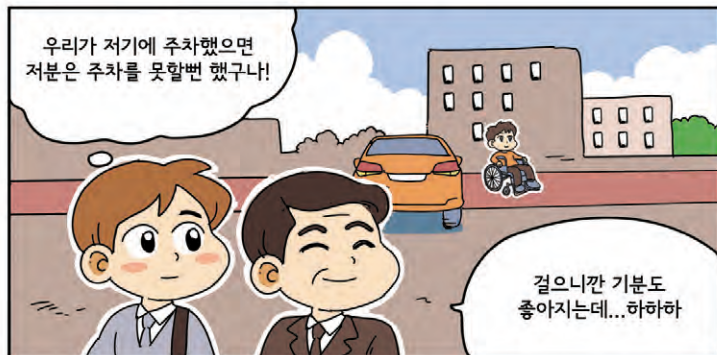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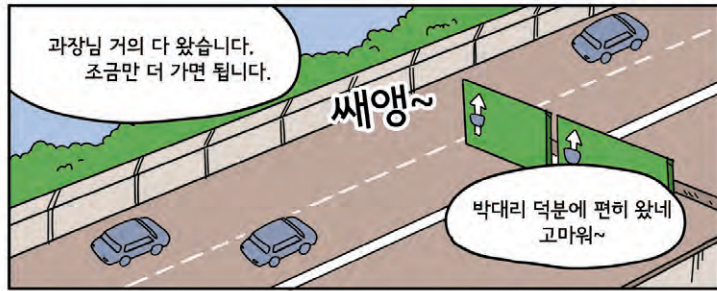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이토록 많은 진정건은 차별적인 현실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시에 희망적이다. 세상을 평등하게 바꾸고자 적극적인 자세로 권리구제에 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발언하는 것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에 함께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길 바란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하면 현실이 된다고 한다. 머나먼 이상향으로 느껴지는 유토피아도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 꿈꾸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우리, 이왕이면 큰 꿈을 꾸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안내 캠페인

## ①출장편



## ②마트편

©KAPPD

